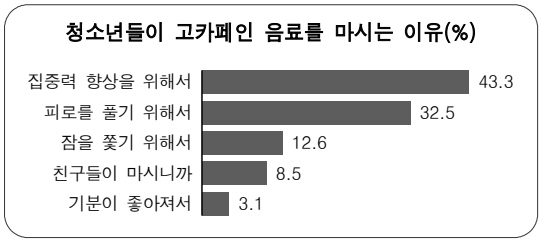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 카페인 부작용, 무섭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고카페인 음료는 만성피로와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매일 마시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왜 마실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피로를 풀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지 않죠.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체육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방법도 있겠죠.

한편,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하기가 어려웠다면 어땠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마 고카페인 음료를 덜 마시게 되었을 겁니다. 즉 고카페인 음료의 구입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학교 매점이나 교내의 자판기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합니다. 따라서 학교 매점이나 교내의 자판기에서만큼은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고카페인 음료 줄이기' 교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이 캠페인에 우리 학급이 앞장서 전교생의 동참을 이끌어냅시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 ····· ①

❖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사전 지식: 고카페인 섭취의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을 것임.

○ 특성: 절반 정도는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부정적 견해를 보임. ····· ②

❖ **발표 순서**

'문제 제기 → 이유 분석 → 해결 방안 제시'의 순서로 진행함. ····· ③

❖ **발표 전략**

○ 동영상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④

○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 ····· ⑤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발표자께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②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왜 하필이면 피로를 풀기 위한 것에 주목하셨나요?

③ 학교 차원에서의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학교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④ 고카페인 음료를 교내에서 접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구입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⑤ '고카페인 음료 줄이기' 교내 캠페인이라는 것이 좀 막연합니다. 그 캠페인의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3. 다음 대화에 나타난 '서현'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민: 어디 아파? 얼굴 표정이 별로네?
서현: 내일이 면접일이잖아. 그동안 다른 애들하고 역할을 바꿔가며 시선 처리나 말투를 봐주면서 연습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
수민: 그래? 넌 발음도 정확하고 연습도 많이 했으니 맘 편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놓여 있는 건 뭐니?
서현: 이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본 거야. 내용은 거의 다 외웠어.
수민: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그 정도 준비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서현: 그래도, 난처한 질문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야…….

① 당황하지 말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침착하게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②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하고 표준 발음으로 대답해야 해.
③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고 외워둔다면 면접 때 잘 말할 수 있을 거야.
④ 시선 처리를 적절히 하며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는 연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⑤ 같이 면접 준비하는 친구와 역할을 바꿔 가며 면접 상황을 연출해 연습해 보는 건 어때?

[4～5] 다음은 선배와 후배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후배: 선배님, 제가 올해 학교 대표로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승하신 선배님을 직접 찾아뵙고 조언을 얻고자 왔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죠?
선배: 물론이죠, 준비가 쉽지 않죠? **나도 작년에 대회 준비할 때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 준비는 많이 했나요?
후배: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주제에 맞게 내용을 조직해 봤어요.
선배: **벌써 자료 수집을 마치고 내용 조직까지 했다니 훌륭한데요.**
후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양한 시각 자료로 만들어봤는데, 활용하면 어떨까요?
선배: 좋은 생각이에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논거를 대면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후배: ㉡상대방이 펼치는 논리의 오류를 찾아 반박하는 것이 토론이니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겠죠?
선배: (**환하게 웃으며**) 맞아요, 메모를 하며 들으면 더 좋죠.
후배: 제가 발언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준비한 내용을 말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던데 말을 빨리 할까요?
선배: **말을 빨리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말이 빨라지면 실수를 하기 쉬우니까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후배: 상대방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만들면 제게 유리하겠죠? TV에서 보니 그렇게들 많이 하던데요.
선배: **그러니까 상대를 흥분시켜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토론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랍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후배: 아, 정말 선배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 놓으세요.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선배: 그래? 처음 보는 후배라 낯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도 친해진 거 같아. ㉤내가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길게 다 말로 해줄 순 없고,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면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4.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점]

① ㉠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말하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고 이해하며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토론이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대화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면 대 면 대화 상황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는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선배'가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상대방의 입장에 동조해 주기
"나도 작년에 ~ 고생이 많았어요.":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었을 때의 기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냄. ····· ①

ⓑ 구체적인 칭찬을 통해 격려해 주기
"벌써 자료 ~ 했다니 훌륭한데요.": 상대방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워 줌. ····· ②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환하게 웃는 행동: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냄. ····· ③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
"말을 빨리 ~ 좋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이 말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 ····· ④

ⓔ 들은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상대를 ~ 만들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확인함. ····· ⑤

6.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요즘에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다. 화려한 인공조명이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밝은 인공조명은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데, 이를 '빛 공해[Light Pollution]'라고 한다. 지나친 불빛은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준다. 밤새 켜두는 조명이 지나치게 밝고 환해서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 생체 변화를 일으켜 피로, 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 건>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것.

①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온다는 점을 활용하면,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② 지나치게 밝은 빛이 생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빛 공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③ 빛이 어둠을 밤새 밝혀준다는 점을 활용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자고 권유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④ 밤새 켜두는 불빛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⑤ 필요 이상으로 밝은 조명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과도한 다이어트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7~8] 다음은 학교 신문에 '학생들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현상: 학생들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 문제의식: 절약하겠다는 의식이 없는 것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의 방법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을 귀찮은 일로 생각함.
○ 결과 분석: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절약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서술 방향: [㉠]

7. '글쓰기 계획'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음을 밝힌다.
②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소개한다.
③ 에너지를 낭비했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④ 학생들의 에너지 소비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에너지 소비 특징을 분석한다.
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은 투철하지만 실천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8. '글쓰기 계획'과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글을 쓸 때, 글의 시작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현상'과 '문제의식'을 반영할 것.
○ 문제 제기를 위해 의문형으로 종결할 것.

① 학생들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알아보며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②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대체 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③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교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④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⑤ 학생들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제 수행 기록 -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사진부 신입생들에게 '조리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 글을 쓰다 보니 의외로 내용이 어려워 사진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설명할 용어와 내용을 가급적 쉽게 풀어서 썼다.

학생의 글

㉠조리개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사진을 찍은 후에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한다. ㉡그래서 사진에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렌즈 조작만 잘 한다면 분위기 있는 사진을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사진은 어떤 예술보다도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비밀은 조리개를 여는 데에 있다. 조리개를 연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눈을 뜨는 것과 비슷하다. 눈을 크게 뜨면 가늘게 뜰 때보다 사물이 상대적으로 흐릿하게 보인다. 카메라 렌즈도 이와 비슷하다. 조리개를 충분히 열어주면 피사체, 즉 사진이 찍히는 대상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흐릿하게 찍힌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카메라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인물을 찍는다면 눈동자에, 비에 젖은 나뭇잎을 찍는다면 그 나뭇잎에 매달린 빗방울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조종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예상되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다.
② 개요를 작성하여 글의 내용을 구조화한다.
③ 대상의 특징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④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⑤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조리개의 기능과 효과'로 구체화한다.
②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리고'로 바꾼다.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④ ㉣은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로 바꾼다.
⑤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절'로 바꾼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사동(使動)'에 대해 학습하였다.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동문은 용언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인 사동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한다'의 의미를 지닌다. 이 때 ㉡용언에 사동 접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용언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 수도 있다. 사동문은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사동사의 형태를 띠지만 사동의 의미에서 다소 멀어진 경우도 있다.

① ㉠: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히셨다.
② ㉡: 어머니께서 아기를 재우고 계신다.
③ ㉢: 영희가 태호에게 사과를 깎게 했다.
④ ㉣: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스스로 입게 하셨다.
⑤ ㉤: 삼촌께서 올해는 농장에서 돼지를 먹인다고 하셨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문을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같이'가 조사로 쓰일 경우 - 앞말에 붙여 쓴다.

ㄱ. 체언 뒤에 붙어 '~처럼'의 뜻일 때
ㄴ.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때'를 강조할 때

2. '같이'가 부사로 쓰일 경우 - 앞말과 띄어 쓴다.

ㄷ. '바로 그대로'의 의미일 때
ㄹ. '서로 함께'의 의미일 때
ㅁ.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의 의미일 때

① ㄱ: 그는 눈같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② ㄴ: 내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한다.
③ ㄷ: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 반이 이겼어.
④ ㄹ: 지난 1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야.
⑤ ㅁ: 은숙이와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다.

13. 다음은 '걸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걸다[1]**형
> ㉠ 흙이나 거름 따위에 양분이 많다.
> ¶ 밭이 걸어서 콩이 잘 자란다.
> ㉡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 풀을 너무 걸게 쑤어서 풀질하기가 어렵다.
>
> **걸다[2]**동
>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
> ㉡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 전축에 음반을 걸다.

① '걸다[1]'과 '걸다[2]'는 별개의 표제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동음이의어이군.
② '걸다[1]' ㉠ 뜻의 유의어로 '기름지다'를 쓸 수 있겠군.
③ '걸다[1]' ㉡ 뜻의 반의어로 '묽다'가 가능하겠군.
④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는 속담은 '걸다[2]' ㉠ 뜻을 이용한 것이군.
⑤ '철수는 계약금을 걸고 그 물건을 샀다.'를 '걸다[2]' ㉡ 뜻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14. <보기>의 밑줄 친 '관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관용어는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두 어휘가 결합되면서 원래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적 어휘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결합된 관용어의 의미를 알 수는 없다.

① 일을 마치고 손을 씻어 얼룩을 지웠다.
② 너무 놀라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③ 혼기가 지난 것 같은데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④ 군대에 간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 눈물이 난다.
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론을 얻을 거야.

15. <보기>의 밑줄 친 '축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크- + -어서 → 커서
② 피- + -어서 → 펴서
③ 오- + -아서 → 와서
④ 그리- + -어 → 그려
⑤ 맞추- + -어 → 맞춰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지은이가 주장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지은이가 기록한 내용 중에는 크고 작은 것, 깊고 얕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을 표현할 때에도 번거롭고 복잡하거나 혹은 간략하고 단순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을 서술해 기록할 때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과 심오한 곳이 있다. 시대에 따라 크게 떠받들고 본받는 것이나 일을 논하는 조목도 마땅히 옛날과 오늘날은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두루 섭렵했느냐 혹은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크게 차이가 생겨난다. 따라서 경전과 역사서에서 물류나 방술에 이르기까지 천지와 인간사에 관한 학설과 이치를 대체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

(중략)

이제 독서를 통해 뒤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려면, 대체로 책의 번거롭고 복잡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나 기이하고 괴상한 내용은 깊이 경계하도록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명확히 밝힌 글이나 이해하기 쉽게 쓴 글과 문장을 권장해야 한다.

16.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야 한다.
② 글이 쓰인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③ 글에 사용된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④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가며 읽어야 한다.
⑤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답을 찾아가며 읽어야 한다.

17. ㉠을 고려했을 때, 다음 상황에서 선호가 민수에게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수**: 선호 형,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도서부에 들어온 민수예요. 아직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선호**: 그래. _____

① 글의 내용은 물론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는 자세가 필요해.
②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쉽게 표현된 글을 찾아 읽어 보렴.
③ 독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너만의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활용해 보렴.
④ 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하며 읽으면 좋아.
⑤ 글을 읽어가며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독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에는 방송이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쏟아 내는 현대사 연구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중에게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역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충실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현대사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수집한 문헌 자료에 대해 ㉠철저한 사실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연구들은 대중들의 기호나 연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된 자료들이 자의적으로 활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사 분야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집하고 검토한 문헌 자료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자료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 현대사 연구는 대중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건을 바라보는 광각적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현대사 연구를 보면 역사적 사건을 특정한 시각에서 지엽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사 연구는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사의 영역에 속하는 종합적인 분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국한된 사건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괄하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는 ㉢구술사(口述史)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현대사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 문헌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구술사를 활용함으로써 진실에 더욱 접근하기 쉬울 때가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의 많은 부분들이 참여자의 경험담, 목격자의 증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에게 구술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여 비전문가들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채록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더욱 올바른 현대사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18. 윗글에 나타난 현대사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대사 연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② 비전문가들의 현대사 연구는 전문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③ 현대사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비전문가들의 현대사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 받고 있다.
⑤ 구술사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이를 현대사 연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9. 윗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① 대중이 바라는 현대사 연구의 주요 방향
② 현대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③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현대사 연구 분야의 성과
④ 현대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통시적 관점의 필요성
⑤ 비전문가들이 현대사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

20.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6·25 전쟁에 대한 역사 서술

(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말하는 전쟁 경험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여 그들이 경험한 전쟁 상황을 기록하고 연구에 활용한다.

(나) 전쟁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되 활용의 자의성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한다.

(다) 전쟁 발발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 남북의 정치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되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파악한다.

	㉠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다)	(나)	(가)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전통 건축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구도의 비대칭성에 있다. 궁궐, 서원, 향교, 한옥 모두 전체 배치를 놓고 보면 좌우 대칭인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궐은 정전(正殿) 앞에, 서원과 향교는 대성전(大成殿) 앞마당에 부분적으로 대칭 구도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전체의 배치를 놓고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건물들을 조금씩 옮겨 놓은 듯 주변으로 가면서 대칭 구도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궁궐같이 전각의 수가 많고 영역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칭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칭 구도로 지어진 건축물은 얼마든지 있다. ㉢서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루브르 궁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궁궐같이 큰 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대칭

구도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 구도는 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을 인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이라고 보았을 때, 대칭 구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 낼 수 있는 질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건물을 대칭으로 짓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정형적 질서를 추구했던 서양 고전 건축의 경우에는 대칭 구도에 대한 선호가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보편적 현상에 가까운 대칭 구도를 유독 한국 전통 건축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주변의 자연 지세(地勢)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구릉이 흐르고 계곡이 파이며 때로는 물길이 나 있는 자연 지세에 건축물을 맞추다 보면, 대칭 구도는 자연히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자연을 인간의 선인 직선으로 정지(整地)하고 재단함으로써 그 위에 인간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던 서양 고전 건축의 자연관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관에서 나온 현상이다.

이와 같이 친자연적 건축관(建築觀)은 한국 전통 건축이 비대칭적 경향을 띠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대칭이 허용되는 경우인데도 이처럼 비대칭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대칭보다 더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비대칭적 대칭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비대칭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대칭이라는 정형적 질서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무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칭에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대칭에는 좌우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균형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산만한 혼란으로 나타나는 무질서적 비대칭과 달리 그 나름대로 고도의 질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대칭이다.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나는 비대칭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2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국 전통 건축의 우아미
 – 소재와 기법을 중심으로
② 한국 전통 건축의 안전성
 – 건축 설계 이론을 중심으로
③ 한국 전통 건축의 효용 가치
 – 한국 전통 건축사를 중심으로
④ 한국 전통 건축에 담긴 예술혼
 – 한국 전통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⑤ 한국 전통 건축의 구도에 담긴 의미
 – 한국 전통 건축의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사실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다.
② ㉡: ㉠과 대립되는 내용의 진술이다.
③ ㉢: ㉡의 구체적 사례이다.
④ ㉣: ㉡과 ㉢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이다.
⑤ ㉤: ㉢과 ㉣을 절충하여 내린 새로운 결론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죽서루'에 대해 이해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죽서루의 정면에서 누대 아래로 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길이가 제각기 다른 아래층 기둥들이다. 바위가 솟은 부분에 기둥을 세우면 짧게, 가라앉은 부분에 기둥을 세우면 길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둥을 자연 그대로의 바위 형태에 맞추다 보니 자연히 17개 기둥의 길이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죽서루는 기초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 바위를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갈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얹듯이 세워 자연 지세에 순응하고자 했던 누각이다.

① 17개의 기둥이 이루는 대칭을 통해 인간의 선인 직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군.
② 죽서루에는 전체적으로 정형적 질서를 지킴으로써 균형감을 유지하려 했던 건축가의 의도가 나타났군.
③ 길이가 제각기 다른 죽서루의 아래층 기둥에는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친자연적 건축관이 반영되었군.
④ 자연석 위에 그냥 얹듯이 세운 죽서루는 주변의 지세에 순응하고자 했던 서양 고전 건축의 자연관과 맞아 떨어지는군.
⑤ 바위를 다듬거나 갈지 않고 자연 그대로 활용한 것을 통해 대칭 구도를 선호했던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이 드러나는군.

24. ⓐ,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국어의 어휘 중에는 '구성되다 – 구성하다'처럼 명사인 '구성'이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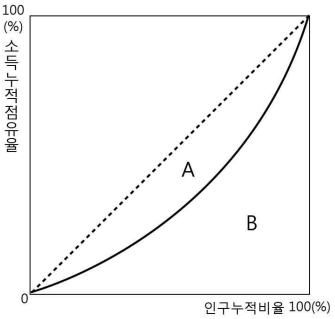
① 보존(保存) ② 결단(決斷) ③ 칭찬(稱讚)
④ 충고(忠告) ⑤ 고집(固執)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10분위 분배율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하여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누적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누적점유율을 표시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로렌츠곡선>

로렌츠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로렌츠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는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이다.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진다. 지니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영(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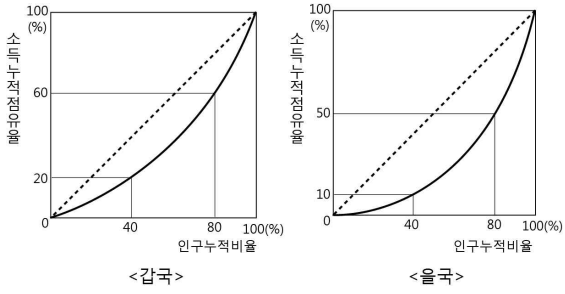
①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전개하고 있다.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③ ㉡이 ㉢보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로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④ ㉢이 ㉠보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⑤ ㉠의 값이 커질수록 ㉡과 ㉢의 값도 커진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단, 인구누적비율은 왼쪽부터 소득 하위 계층을 의미한다.

① 갑국의 소득 분배가 을국의 소득 분배보다 더 평등하다.
② 갑국의 지니계수가 을국의 지니계수보다 1에 더 가깝다.
③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더 낮다.
④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⑤ 갑국의 경우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전자 치료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 안에 치료용 유전자를 넣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의 핵심은 치료용 유전자를 손상된 세포의 핵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나)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전달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유전자를 세포에 직접 넣게 되면 수초 내에 분해되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벡터를 활용한다. 벡터란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달체이다. 핵에 도달한 치료용 유전자는 유전자 발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 벡터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스성 벡터와 고분자 등의 화학 물질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있다.

(다) ㉠바이러스성 벡터는 세포막과 잘 결합하고,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 효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원래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벡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기능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바이러스성 벡터는 크기가 매우 작아 삽입할 수 있는 치료용 유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바이러스성 벡터를 개발하고 있다.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유전자를 전달해야 하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이 때 고분자를 벡터로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고분자가 치료용 유전자와 결합하면서 치료용 유전자를 작게 압축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작게 압축된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 주머니에 싸여 이동하는 중에 세포 보호를 위해 외부 물질을 분해하는 리소좀을 만나게 된다.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세포막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한다. 무사히 세포막 주머니에서 나온 벡터가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핵 안에 들어간 치료용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

(마) 이렇게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핵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바이러스성 벡터에 비해 유전자 발현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비교적 제조 방법이 간단하고 벡터에 실리는 유전자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질병 유발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바이러스성 벡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유전자 발현: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복사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

28. (가)~(마)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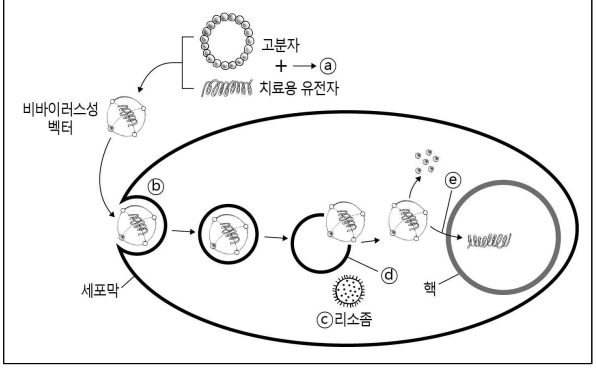
① (가): 최근 유전자 치료의 연구 동향
② (나):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벡터의 역할과 종류
③ (다): 바이러스성 벡터의 실제 활용 비율
④ (라): 유전자와 고분자의 다양한 결합 방법
⑤ (마):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부작용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세포막과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②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③ 삽입할 수 있는 치료용 유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④ 비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유전자를 핵까지 쉽게 전달한다.
⑤ 비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효율이 높다.

30.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① ⓐ를 통해 만들어진 벡터는 세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
② ⓑ에서 벡터는 세포막 주머니에 싸이게 된다.
③ ⓒ를 만나기 전에 벡터는 세포막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한다.
④ ⓓ에서 나온 벡터는 세포막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⑤ ⓔ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홉 아들과 열두 딸을 거느린 장끼와 까투리가 엄동설한에 먹을 것을 찾다가 붉은 콩 하나를 발견한다. 굶주린 장끼가 크게 기뻐하며 먹으려 하자 까투리는 지난밤의 불길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콩을 먹지 말라고 만류한다.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룩 꽁지깃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짓하며 조츰조츰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혓부리로 콩을 꽉 찍으니 두 고패*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 중에 저격시황 하다가 버금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뚝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어찌할 수 없이 치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계집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 풀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한다.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이 불쌍하다 탄식하며 조문 애곡하니 이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까투리는 그 슬픈 가운데에서도,

[A] "공산 야월 두견새 소리 슬픈 회포 더욱 섧구나.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이르기를 좋은 약이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하였으니, 당신도 내 말 들었더라면 이런 변 당할 리 없지. 애고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부부 좋은 금실 누구에게 말할 손가?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이 되고 한숨은 비바람이 되는구나. 애고,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찌할꼬?"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장끼는 그래도 덫 밑에 엎디어서 하는 말이,

"에라 이년 요란하다! 호환(虎患)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 어디 있겠나? 미련은 먼저 오고 지혜는 누구나 그 뒤의 일이니라. 죽는 놈이 탈 없이 죽을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람도 죽고 삶을 맥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는 않겠나 어디 한 번 맥이나 짚어 보소."

까투리는 장끼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여겨 장끼의 맥을 짚어 보다가,

"ⓐ비위맥은 끊어지고, 간맥은 서늘하고, 태충맥은 굳어져 가고 명맥은 떨어지오.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웬수로다."

장끼란 놈 몸을 한 번 푸드득 떨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게. 동자부처* 온전한가?"

까투리는 장끼의 눈청을 살펴보고 나서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속절없네. 저편 눈의 동자부처 첫 새벽에 떠나가고, 이편 눈의 동자부처는 지금 막 떠나려고 파랑보에 봇짐 싸고 곰방대 붙여 물고 길목버선 감발*하네. 애고애고, 이내 팔자 이다지도 기박한가. 상부(喪夫)도 자주 하네, 첫째 낭군 얻었다가 보라매에 채여 가고, 둘째 낭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려 가고, 셋째 낭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 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낭군 얻어서는 금실도 좋거니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남겨 놓고 아들딸 혼사도 채 못 해서 구복(口腹)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 덫에 덜컥 치었으니 속절없이 영 이별하겠구나. 도화살을 가졌는가 상부살을 가졌는가, 이내 팔자 험악하네. 불쌍하다 우리 낭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이 들어 죽었는가. 망신살을 가졌는가, 고집살을 가졌는가. 어찌하면 살려낼꼬. 앞뒤에 서 있는 자녀 누구와 혼인하며 뱃속에 든 유복자 해산구완 누가 할꼬. 운림초당(雲林草堂) 넓은 들에 백년초를 심어 두고 백년해로 하잤더니 단 삼 년이 못 지나서 영결종천* 이 별초가 되었구나. 저렇게도 좋은 풍신 언제 다시 만나 볼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한탄 마라. 너는 명년 봄이 되면 또다시 피려니와 우리 낭군 이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미망일세, 미망일세, 이내 몸이 미망일세."

한참 동안 통곡을 하니 장끼는 눈을 반쯤 뜨고,

"자네 너무 서러워 말게. 상부(喪夫) 잦은 자네 가문에 장가간 게 내 실수라. 이말 저말 잔말 말게. 죽은 자는 불가부생(不可復生)*이라, 다시 보기 어려울 테니 나를 굳이 보겠으면 내일 아침 일찍 먹고 덫 임자 따라가면 김천장에 걸렸거나 전주장에 걸렸거나 청주장에 걸렸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감령도나 병영도나 수령도의 관청고에 걸렸든지, 봉물짐에 얹혔든지, 사또 밥상에 오르든지, 그렇지도 아니하면 혼인 폐백건치* 되리로다. 내 얼굴 못 보아 서러워 말고 자네 몸 수절하여 정렬부인 되어 주게.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내 까투리 우지 마라. 장부 간장 다 녹는구나. 자네가 아무리 슬퍼해도 죽는 나만 불쌍하네."

그러면서 장끼는 기를 벅벅 쓴다. 아래 고패 누르고 윗 고패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은 전혀 없고 털만 쑥쑥 다 빠진다.

– 작자 미상, 「장끼전」 –

* 고패: 꿩 잡는 덫에 목을 조르게 되어 있는 쇠.
* 박랑사 중에~맞히는 듯: 창해역사(滄海力士) 여홍성이 한나라 사람 장량과 함께 진시황을 박랑사에서 저격하였으나, 빗나가서 부관의 수레만 명중시킨 일을 말함.
* 동자부처: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난 사람의 형상.
* 감발: 과거에 먼 길 떠나는 사람들이 버선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
* 영결종천: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 불가부생: 다시 살 수 없음.
* 폐백건치: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 뵐 때 폐백으로 쓰는 말린 꿩고기.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의태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③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 가정되는 상황의 나열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인물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2.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정에 호소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②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행동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상황을 과장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고서의 구절을 인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화 소설은 인격화된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당대의 사회 제도나 사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하고, 교훈을 주기도 한다. 또한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의 문제로 제기하거나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① 한겨울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장끼'의 모습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었어.
② 등장인물을 사람 대신 '장끼'와 '까투리'로 설정한 것은 당대의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함이겠군.
③ 콩을 먹기 위해 고집을 부리다가 덫에 걸린 '장끼'를 보고,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
④ 죽어가면서도 '까투리'에게 수절을 요구하는 '장끼'의 말을 통해 부부 간의 사랑과 믿음을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고자 했군.
⑤ '장끼'가 '까투리'의 만류를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다가 죽는 것을 통해 당시의 남존여비 사상을 풍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

34. ⓐ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③ 명재경각(命在頃刻)　④ 식자우환(識字憂患)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B]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C]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D]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35.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공간을 대립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나타내고 있다.
⑤ 묘사를 통해 생동감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36.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에서 '몸짓'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② [B]의 '꽃'은 '이름을 불러 주'기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를 나타낸다.
③ [C]의 '빛깔과 향기'는 '나'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다.
④ [D]에서 '눈짓'은 서로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⑤ [A]~[D]를 통해 '나'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의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마르셀 뒤샹의 <샘>이다. 이 작품의 소재인 소변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에 불과했으나, 뒤샹은 여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예술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전통적인 미술가의 역할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뒤샹의 이런 시도를 계기로, 이제 미술가는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존재가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경 유학생이던 김희준은 학자금 부족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고향은 예전과 달리 황폐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준은 청년회에서 야학을 하며 농민들을 계몽해 보려 하지만, 청년회 회원들은 농민들을 계몽할 의지가 없다.

[A] 농촌은 오륙 년 전보다도 더욱 황폐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는 고향에 돌아온 지가 벌써 일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에 자기는 무엇을 했는가? 하긴 청년회 일을 안 보지 않았다. 그는 그곳 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회란 무엇 하는 게냐? 그는 처음 나와서 읍내 있는 청년회를 가보고 놀랐다. 그것은 청년회인지 오락 기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든지 청년들이 모이긴 모였다. 한편에서는 바둑을 두고 한편에서는 **장기**를 두고 그리고 마당에서는 한 패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들은 내기를 하고 있었다. 승부를 결단하자.

"가세."

하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어디로 가자는가?'

그때 희준이는 덩둘하였다*. 결국 따라가 본즉, 거기는 음식점이었다. 이런 주식업에 비교하면 그래도 그들이 노동 야학을 시작한 것만은 장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유명무실로 선생들의 태만한 행동은 **학생들의 열성**을 꺼지게 했다. 그때보다는 청년회 꼴이 제법 쇄신된 모양이다. 그러나 ㉡희준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도 그것은 비빔밥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유흥 기반에는 백 퍼센트의 열을 띠고 나선다. 그도 그럴 것은 — 그들은 대개 장사치들과 은행 회사원들의 중산 계급으로서 지식 정도로도 중학 한 개를 똑똑히 마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는 공연히 헛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자식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한다고! 그 자식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들이야! 쥐꼬리는 송곳집으로나 쓰지 그 자식들은 거름도 못할 자식들인데 뭐."

이런 말은 희준이보다도 그들끼리 서로 욕하는 말이었다.

"이 고장이란 원체 할 수 없는 곳이지요. 팔도 모산지배*가 모여 사는 곳이라 모두 본데없이 자라나서 부랑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청년회가 있대야 그저 벌제위명*이지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요."

희준이가 ○○일보사 지국장인 **장수철**을 찾아가서 고향에 돌아온 첫인사를 하고 났을 때 복장을 근대식으로 차린 그는 가장 점잖게 지사적 어투로 이런 말을 했었다. 그는 그때 청년회 위원장이라면서 마치 남의 말을 하듯 하지 않던가. 마치 자기는 그들의 유(類)가 아니라는 것처럼!

(중략)

세 사람은 읍내로 가는 길을 나란히 떼놓았다. 돌자갈을 깐 한길 위로 단장을 끄는 소리가 희준이 귀에는 차차 멀리 울려왔다.

'저런 작자들과 무슨 일을 한담!'

㉢으스름달밤은 훤한 들판에 검푸른 장막을 드리웠다. 달빛 아래에는 초가집도 궁전과 같다.

원터 뒷산에 아득한 솔숲이 우중충하게 그늘진 밑으로 마을의 초가집들은 선경과 같이 은은히 안겨 있다.

조각달은 어느덧 서천에 기울어졌는데 딱따구리는 뒷산에서 울고 소쩍새는 동구 앞 느티나무 속에서 운다. 고요한 이 밤에 한 줄기 시냇물이 은파를 번득이며 들 가운데로 감돌아 흐르는데 큰 내의 여울물은 바다같이 훤하게 남쪽으로 트여 있다.

"소쪽! 솟소쪽!....."

㉣소쩍새는 처량하게 밤을 새워 울려는가!

홀로 가는 희준이는 적적한 들 가운데를 접어들며 마음속에 고독을 느꼈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가 논둑길 밑으로 따라온다. 넓은 들과 같이 마음속에도 공허를 가져왔다.

그는 동무들을 격려하며 일을 보다가도 가끔 이와 같은 적막을 느꼈다. 그런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웃고 떠들어도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같**이 **의식의 간격**을 자아낸다.

'이까짓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담!'

그는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한 것 같았다. 인간이란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가소로운 생각도 난다.

그는 금시로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서 만사가 무심해졌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 놈들은 모두 조그만 사욕에 사로잡혀서 제 한 몸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로나 글로는 장한 소리를 하지만 뱃속은 돼지같이 꿀꿀거리는 동물이야! 그것들과 같이 일을 해 보겠다는 나 자신부터 같은 위인이 아닐까?'

그러다가도 어떤 박자로 열이 올라서 다시 일에 열중할 때는 금시로 그는 어떤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을 하게 했다.

'그렇다! 그들도 사람이 아닌가. 잘 지도하면 된다.'

마치 그는 숨 죽었던 모닥불이 한동안 검은 연기만 토하다가 별안간 불길을 확 내솟듯이 청년의 왕성한 '열정'이 모든 곤란을 무찌르고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희준이는 **다시 고적**하였다. 그는 김빠진 맥주처럼 맥없이 들길을 걸어갔다.

'그 사람들이 아마 음전이 집에 가서 먹지!'

그는 즉시 그들을 쫓아가고 싶었다.

음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술상을 차리는지도 모른다. ㉤그는 참으로 자기에게 추파를 보냈는가! 그것은 몰라도 그는 볼 적마다 웃는 것이 인사였다.

— 이기영, 「고향」 —

* 덩둘하다: 어리둥절하여 멍하다.
* 모산지배: 꾀를 부려 이해타산을 일삼는 무리.
* 벌제위명: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짓을 함.

3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된다.
② 간접 인용을 통해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현실에 절망한 회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희준에 대한 회원들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색채어를 사용하여 고향 마을의 긍정적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④ ㉣: 인물의 허전하고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음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고향」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주인공 '희준'이 속한 청년회에서도 드러난다. 즉 피폐한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회원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청년회를 여가 선용 모임 정도로 여기는 소시민성, 실천력 없이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있는 인물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계몽하고자 했던 희준은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희준을 통해 근대적 지식인의 고독과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① 야학을 통한 농민 계몽보다 '장기'나 '테니스'에 열중하는 청년회의 모습에서 소시민성이 드러나는군.
② 회원들이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학생들의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군.
③ '장수철'과 같은 인물은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실천력을 상실한 지식인으로 볼 수 있겠군.
④ 희준이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같'다고 말하며 느끼는 '의식의 간격'은 근대적 지식인이 느끼는 고독이겠군.
⑤ 희준이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하다가도 '다시 고적'해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살고 싶습니다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接)을 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철사(鐵絲)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철수산(鐵樹山)*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 선왕성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화로운 시절.
* 삼동: 세 묶음.
* 철릭: 무관이 입던 옷.
* 철수산: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장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석가」는 서사 – 본사 – 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동일한 발상의 기법을 쓰면서도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사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① 1연의 '선왕성대에 살고 싶습니다'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② 2~5연의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2~5연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기법이 동일하다.
④ 2, 3연의 '싹이 난다면', '피어난다면'과 4, 5연의 '헐게 된다면', '먹어야'는 생성과 소멸의 대칭 관계를 이룬다.
⑤ 6연의 '끈'이라는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진희는 아빠와 함께 여행을 하며 가슴이 설레지만 아빠는 진희를 보육원에 남겨 둔 채 사라져 버린다. 진희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숙희와 친해지면서 보육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간다. 그러나 숙희는 혼자 입양을 가게 된다.

S# 70. 공동 침실 – 내부 (밤)

잠을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는 진희, 벌떡 일어나 앉는다. 잠자는 아이들 사이로 숙희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빈 자리를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는 진희.

S# 71. 마당 – 외부 (낮)

탱자나무 울타리 안. 담벼락 사이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진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 쪼그려 앉아 있다. 탱자나무 그늘 너머로 햇볕이 가득한 빈 마당이 보인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진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 발자국 소리, 가까이 다가온다. 숙희의 작은 발부터 먼저 보이고, 이어 나무 안쪽으로 고개를 숙여 보는 숙희의 얼굴이 보인다. 못 보던 예쁜 새 옷을 입고 있다. 진희는 여전히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 진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숙희.

숙희 …….. 미안해.

진희 ……..

숙희 진짜 미안해.

진희 ……..

숙희, 잠시 진희를 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돌아서 걸어간다. 숙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진희.

롱샷*, 빈 마당과 보육원 건물 지붕 위로 잿빛의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러간다.

S# 74. 현관 앞 – 내부 (낮)

㉡비가 내리고 있는 보육원 빈 마당. 적막하고 스산하다.

진희 혼자 현관 앞에 오두마니 앉아 내리는 빗발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닫힌 철대문을 보고 있는 것도 같다. 사이. 뭔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희, 비가 내리는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비를 맞으며 행정건물 쪽으로 달려가는 진희의 뒷모습.

S# 75. 원장실 – 내부 (낮)

구 원장의 책상 앞에 고집스런 표정으로 서 있는 진희. 구 원장은 당혹스런 얼굴로 그런 진희를 쳐다보고 있다.

진희 전화번호는 몰라도 주소는 안단 말예요.

구 원장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래 주소가 어딘데?

진희 전주시 다가동 33의 5. 주소를 알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구 원장 ㉣(한숨을 내쉰다) …….

진희 찾아가 주세요. 가서 우리 아빠 만나야 돼요.

구 원장 (할 수 없다는 듯) 주소는 확실하니?

진희 찾기 쉬워요. 중앙 국민 학교 바로 옆이에요.

구 원장 알았으니까 가서 옷 갈아입어. 비 맞았으니까.

진희 진짜 가볼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구 원장 그래, 약속할게.

아직도 옷이며 머리칼에서 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진희, 그제야 한기를 느끼는지 바르르 떨면서 몸을 움츠린다.

S# 78. 행정건물 복도 – 내부 (낮)

진희, 원장실 방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진희. 침을 한 번 삼키고 각오한 얼굴로 다시 문을 두드린다.

S# 79. 원장실 – 내부 (낮)

구 원장과 마주 앉은 진희. 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던 진희,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묻는다.

진희 정말 맞게 찾아가신 거예요?

구 원장 틀림없어. 집 앞에 쌀가게 아줌마도 만났어. 니네 식구들 그 집에서 살았던 거 다 이야기해 줬어.

진희 …….

구 원장 지금은 그 집에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른대.

똑바로 고개를 든 채 원장을 쳐다보고 있는 진희의 얼굴. 아무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표정이다. 그 얼굴 위에 원장의 말소리 계속 들린다.

구 원장(O.S.*) 이제는 너도 다 잊어버려야 해. 아버지는 다시 안 오셔. 절대 안 오실 거야. 넌 여기서 새 부모, 새 가족을 만나야 돼……. 알았지?

㉤그러나 진희의 표정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 이창동·우니 르콩트 각본, 「여행자」 –

* 롱샷(Long Shot): 연기가 이루어지는 범위 전체를 잡는 카메라 기법.
* O.S.(Off Scene): 화면 밖에 있는 인물의 목소리를 삽입하는 것.

43. 윗글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고 할 때, 감상의 주안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적 상황 변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에 주목해 본다.
② 소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변모된 시대상을 정리해 본다.
③ 과거 장면의 삽입에 따른 사건의 극적 반전에 주목해 본다.
④ 비유적인 대사들을 살펴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본다.
⑤ 공간의 확장에 주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파악해 본다.

44. S# 71을 윗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숙희'에게는 새 옷을 입혀 입양을 가게 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② '숙희'의 이동을 표현할 때는 발자국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한다.
③ '진희' 역을 맡은 배우는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로 연기하도록 지시한다.
④ 마지막 장면은 빈 마당과 보육원 건물이 한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촬영한다.
⑤ 주인공인 '진희'를 강조하기 위해 '진희'가 있는 공간은 주변보다 조명을 밝게 한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진희'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② ㉡: 비 오는 장면을 통해 '진희'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진희'의 시선을 통해 '진희'가 아버지와의 재회를 단념했음을 알 수 있다.
④ ㉣: '구 원장'의 행동을 통해 '진희'의 부탁을 거절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⑤ ㉤: '진희'의 표정을 통해 '구 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